지하철6호선역명변경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2001. 7. 2
제 안 자: 총무건설위원장

1. 제안경위

○ 2001. 7. 2.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유남렬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지하철6호선역명변경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원안 가결함.

2. 주문

○ 혼잡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설된 지하철6호선이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조차도 "광흥창"이라는 역명이 생소하여 인지하기도 어렵고 지역정서와도 맞지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2001년 5월 29일 인근주민 및 이용시민 3,522명은 연서하여 "서강"으로 역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바 있으나, 6월 7일 해당기관에서는 역명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었음.

○ "광흥창"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주변 지역 정서와도 맞지않고 현실적 인지도도 낮아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시민 대다수가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되기에,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옛부터 창전,상수,신수동 지역을 통칭한 지명인 "서강"으로 역명이 변경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함.

3. 제안이유

○ 시민의 인지도 및 편의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학자적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반영하여 " 광흥창" 으로 역명을 제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불편 초래.

○ 많은 시민이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옛부터 생활속에 묻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창전, 상수, 신수동 지역을 통칭한 지명인 " 서강" 으로 역명을 변경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지하철6호선" 광흥창" 역명 제정경위

○ 광흥창(서강)역 역명변경에 대한 진정서 회시문

따로붙임 : 지하철6호선 역명변경에 관한 건의문

지하철6호선 역명변경에 관한 건의문

○ 혼잡하고 불편한 교통수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설된 지하철6호선이 2000. 12. 15일 개통됨에 따라 마포구 신수동, 창전동지역에 위치한 驛舍의 명칭을 92년 제2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 서강" 으로 역명을 제정하였다가 96년 제1차 지명위원회에서는 " 창내" 로 재결정하고, 2000. 10. 2일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단지 역사의 뜻이 담겨있고 인근에 화물차 전용인 용산선 서강역과 환승이 되지 않아 이용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용시민의 인지도 및 편의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학자적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반영하여 " 광흥창" 으로 역명을 결정함에 따라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조차도 " 광흥창" 이라는 역명이 생소하여 認知하기도 어렵고 지역정서와도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2001년 5월 29일 인근주민 및 이용시민 3,522명이 연서하여 " 서강" 으로 역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귀사에 제출되었으나, 귀사에서는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제정사유와 역명 변경을 요구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역명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고려·조선시대 때 녹봉창고인 " 광흥창" 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주변 지역 정서와도 맞지 않고 현실적 인지도도 낮아 개통된 지 7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시민 대다수가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물차 전용인 용산선 서강역과의 혼동을 우려하나, 현재 지하철2호선 신촌역도 인근에 있는 경의선 신촌역과 역명이 동일하나 혼동없이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음.

0 귀사에서는 역사적 가치와 용산선 서강역과의 혼동 및 역명변경을 요구하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역명변경이 불가하다는 귀사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 주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많은 시민이 찾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옛부터 생활속에 묻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하철을 건설한 본래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옛부터 창전,상수,신수동 지역을 통칭한 지명인 " 서강" 으로 역명이 변경되어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귀사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역명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지하철 6호선 "광흥창" 역명 제정경위

'92. 11. 5 : '92 제2차 서울시지명위원회 개최

- "서강"역으로 역명 제정

'96. 5. 7 : 역명변경 건의 (도시철도공사 → 지하철건설본부)

- 서강 → 창전

※ 사유 : 기존 국철의 서강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환승이 되지 않는 역으로 이용시민의 혼란을 초래 할 우려와 역사가 창전동 사거리에 위치

'96. 6. 19 : '96 제1차 지명위원회 개최

- 서강 → 창내(광흥창)로 결정

※ 사유 : 본래의 명칭 창천을 인용하고 옛날 큰 창고가 있었다는 명칭을 병기

'96. 10. 25 : 지하철역명 변경 건의 (교통위원회 이윤중 의원)

- 창내(광흥창) → 다른 명칭으로

'96. 10. 31 : 역명변경 건의에 대한 의견조회(지하철건설본부 → 마포구청)

- 창내(광흥창) → 다른 명칭으로

'96. 11. 27 : 역명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 (마포구청 → 지하철건설본부)

- (제1안) : 신수, (제2안) : 구수

'97. 3. 26 : '97 제1차 지명위원회 개최

- 창내(광흥창) → 보류

※ 사유 : 창내라는 의미가 생소하여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수, 구수라는 말이 왜식이고 어감이 좋지않기에 보류

'97. 10. 14 : '97 제1차 지명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 심의

- 창내(광흥창) → 광흥창

※ 사유 : 지하철 역사가 창전동과 신수동에 위치하여 신수역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창전동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어 이 지역의 옛 지명인 「광흥창」 역으로 결정

'00. 6 : 역명변경 건의(마포구청 지역주민, 김관수 시의원 → 본부)

- 광흥창 → 서 강

※ 사유 : 광흥창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기에 지역주민에게 널리알려져 친근감이 있는 서강역으로 개정

'00. 10. 2 : '2000 제3차 지명위원회 개최

- 광흥창 → 광흥창(서강)

※ 사유 : 역사적 뜻이 담겨있는 지명을 고려하고, 현실적 인지도를 감안 광흥창(서강)으로 의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33-170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전화6211-2145/전송 6211-2169
처리부서 영업처 영업계획팀(본사6층) / 팀장 권대진 과장 김선일 담당 노병하

문서번호 영업1100-1892
시행일자 2001. 6. 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목 광흥창(서강)역 역명변경에 대한 회신

1. 도시철도 발전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6호선 광흥창(서강)역 역명건에 대하여 "서강" 단일역명으로 변경토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역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 역주변의 옛 지명, 또는 법정동 및 행정동, 고적, 사적등의 문화재 명칭, 국가주요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및 시민의 정서에 맞은 지명도를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6호선 광흥창(서강)역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민 여론 등을 수렴 후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92.11.5 "서강역"으로 결정되었으나, '96.6.19 서강역을 "창내(광흥창)역"으로, '97.10.14 창내역을 "광흥창역"으로, '00.10.2 광흥창역에 "서강"을 병기토록 결정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6호선 광흥창(서강)역의 제정 동기는 인접한 국철구간 용산선인 마포구 신수동에 서강역이 있고 또한 6호선 대흥역에 서강대를 병기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선시대 경기와 3남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수미를 쌓아 두었다가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던 곳으로 그 규모는 1년에 쌀 19,000석, 대두 18,000석을 보관할 정도의 대규모 창고가 있었다하여 역 주변의 옛 지명인 광흥창을 역명으로 제정하였으나,

라. '00.6.21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광흥창역을 서강역으로 역명개정 청원서를 마포구청을 통해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광흥창이라는 역사적 뜻이 있는 자랑스러운 지명을 널리 홍보 사용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광흥창역에 서강을 병기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명을 서강역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 서강은 서울의 서쪽에 있는 강으로 합정동,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구수동 등을 포괄적으로 서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흥창(서강)역으로부터 600m, 대흥(서강대앞)역으로부터 300m에 국철 용산선 서강역이 있어 이용에 혼동을 주어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오며, 또한 역명판 및 지하철 노선도, 전동차내 안내방송 등 교체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바. 최근에도 지하철 역세권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방송국 등으로 부터 역명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거의 모든 역의 이름을 개정해 주어야 하는바, 만약 수용할 경우 기존에 요청하였던 해당지역 주민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향후 유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사. 따라서 유남열 님, 이종일 님, 한대운 님 외 3,519명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광흥창 역명에 서강역을 병기하고 있음에 따라 역명개정 요청한 건에 대하여 수용하기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수신처 유남렬, 이종일, 한대운 외 3,519명